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賢祖實錄探險

우리 민족의 삼자(三字) 타령(打鈴)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원공파회장

삼족오(三足鳥), 삼세판 등 우리 민족(民族)은 고대사회부터 삼수자(三數字)를 즐겨 사용했으며 일상에서도 삼을 넣어 부르는 명사(名辭)는 너무 흔하다. 산천(山川) 지명(地名)하며 원우(院宇) 정각(亭閣) 명칭도 삼(三)이 들어가야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쉽다고 한다. 동양에서 보는 숫자 9(아홉)은 완성 성취를 상징하는 숫자여서 1, 3, 5, 7, 9다. 기수의 최소 단위는 안정감 있는 3을 꼽았다. 공이 따지면 3이 제곱된 9는 가장 높고 깊고 가장 길(吉)한 숫자로 쳤다. 하늘에서도 신이 계신 가장 높은 곳이 구천(九天)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행운의 숫자 7은 다분히 서양적이다. 천지인(天地人)을 삼재(三才)라 하고 땅엔 삼신산(三神山)이,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卍韓)을 삼한시대라 하였고 단군(檀君) 기자(箕子) 위만(衛滿)을 삼조선(三朝鮮), 단군(檀君) 환인(桓因) 환웅(桓雄)을 삼신(三神)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고대사회도 갈수록 삼자(三字)의 사용이 더 짙어지고 신성시 하는 숫자다.

지명(地名)에선 삼자(三字) 사용이 절대적이다. 경주(慶州) 평양(平壤) 개경(開京)을 삼경(三京)으로, 압록(鴨綠) 두만(豆滿) 한강(漢江)은 삼대강(三大江)으로, 백두(白頭) 금강(金剛) 한라(漢拿)는 삼대산(三大山), 경상(慶尙) 충청(忠淸) 전라(全羅)를 두고 삼남(三南)이라 한다. 국립교육기관이었던 지역 향교(鄕校)나 서원(書院)에서도 주례(周禮) 의례(儀禮) 예기(禮記)는 삼례(三禮)로, 좌전(左傳) 공양전(公羊傳) 곡양전(穀梁傳)은 삼전(三傳)으로, 추사, 연암, 단원을 삼고봉(三高峰)으로 불렀다. 원사당은 더 심하다. 예전 용궁엔 삼강서원(三江書院)이, 용담에는 삼천서원(三川書院)이, 성주 삼봉서당(三峰書堂), 威安 삼봉사(三峰祠) 정도 삼우당(三友堂), 영주(榮州) 삼

우정(三友亭)이, 안동(安東)엔 삼태사(三太師)다. 고도 경주에는 지명 정자, 능 이름 등이 유독 많다. 삼괴정(三槐亭), 삼체석불(三体石佛), 삼릉(三陵), 삼가팔교(三奇八槨) 등이다. 삼자(三字)를 넣은 호(號) 역시 부지기수다. 문익점(文益漸)은 삼우당(三憂堂), 정도전(鄭道傳)은 삼봉(三봉峰) 매죽헌(梅竹軒)은 삼문(三間), 포은(圃隱) 목은(牧隱) 아은(治隱)을 묶어 삼은(三隱)이라 부른다.

특히 산(山) 이름이나 지명은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간에 삼자(三字)가 빠지지 않아 오히려 너무 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영천(永川)의 삼산(三山), 거창(居昌)과 단양(丹陽) 삼봉산(三峯山), 서울의 삼각산(三角山), 옥천(沃川)의 삼성산(三成山), 청송(靑松)의 삼자현(三者峴), 그리고 안성(安城)의 삼죽면(三竹面), 천안(天安)과 예산(禮山)의 삼거리(三里), 춘천(春川)의 삼양리(三楊里), 고성(固城)의 삼일포(三日浦) 해안 등 지명은 셀 수 없을 만큼 흔하다.

시인묵객(詩人墨客)들도 삼자(三字)를 즐겼다.

하(夏), 상(商), 주(周) 성대(盛代)를 삼대일월(三大日月) 시대로 높이 여기고 전세(前世) 현세(現世) 내세(來世)를 삼세(三世)로, 백발(白髮) 삼천척(三千尺)이요, 후례(後禮) 삼배(三盃)다. 신라 향가책(新羅鄕歌冊)을 삼대목(三代目)으로 여겼고 시(詩) 주(酒) 금(琴)을 삼우(三友)로, 가난한 선비의 적빈(赤貧)을 삼순구식(三旬九食, 삼십일 동안에 아홉 끼를 먹어 몹시 가난하게 산다는 뜻)이라고 높이 쳤고 유동(幼童, 열대여섯 살 이하 아이를 일컫는 말)을 삼척동자(三尺童子)로 귀히 여기고 후에도 삼훈칠백(三魂七魄)이 존재를 높이 사고 향교(鄕校)와 서원(書院), 원사당 향사(鄕社)에선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을 삼헌(三獻)을 두어서 조상 받드는 일을 일상생활로 여겼다.

이렇듯 삼자(三字)가 사는 곳과 시문(詩文), 일상의 씬터, 놀이터 등 곳곳에 깊숙히 파고들어 삼자(三字)를 넣어 부르는 명사(名辭)는 부지기수다. 삼족오(三足鳥), 삼세판과 같은 삼자(三字) 타령(打鈴)은 민족이 태동한 환웅(桓雄) 시대부터 애용되었지만 지금 세대는 서양 문물에 파묻혀 그 의미조차 모르고 쓰게 됐다.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11>



권오신 편집위원장

<창설재집>은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인 창설재 권두경(權斗經, 1654~1725) 공의 시문집으로 총 18권 9책이다.

공은 북야공파(僕射公派)로 태사공 25세이며 자는 천장(天章)이고 호가 창설재이다.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撥)의 5세손으로 부친은 권유(權濡, 1628~1681)이고, 모친은 선성김씨(宣城金氏, 1634~1685)이며, 배위는 표은(瓢隱) 김시은(金是樞, 1598~1669)의 따님으로 의성김씨(義城金氏, 1650~1721)이다.

공은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의 문인으로 밀암(密庵) 이재(李裁, 1657~1730), 하당(荷塘) 권두인(權斗寅, 1643~1719), 은봉(隱峯) 이봉징(李鳳徵, 1640~1705) 등과 교유하였다.

1679년(숙종 5)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1689년 문학으로 천거되고, 1694년 학행으로 천거되어 태릉참봉·사용원봉사·직장(直長)·종부시주부를 거쳐, 형조좌랑을 역임하였다. 1700년 봄 정랑(正郎)에 승진되었다가 곧이어 영산현감(靈山縣監)으로 부임하여 풍속을 크게 교화시켰다.

1710년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직장·전라도사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그 뒤 시간원정언에 임명되었으나 사직 상소를 올리며 시정(時政)의 잘못에 대해서 논하였다. 1717년 영남에서 1만여 인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릴 때 그 상소문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1721년 고산찰방(高山察訪)에 임명되었으나 얼마 뒤 귀향하였다. 1723년 홍문관부수찬이 되었다. 그 뒤 수찬이 되어 시정의 폐단을 논하는 상소를 올렸다. 문장이 뛰어났는데, 특히 시에 능하였다.

밀암(密庵) 이재(李裁)가 행장을 짓고 놀은(詔隱) 이광정(李光庭, 1674~1756)이 묘지(墓誌)를 지었다.

창설재집(蒼雪齋集)

경북 봉화 백록리사(柏麓里社), 지금의 송록서원(松鹿書院)에 제향되었다.

공은 문집 <창설재집> 18권 9책 외에 편서로서 <퇴도선생언행통록(退陶先生言行通錄)>과 <계문제자록(溪門諸子錄)>을 남겼다.

공의 시문(詩文)은 그 아들 관행당(觀行堂) 권모(權慕, 1690~1751)와 조카 강좌(江左) 권만(權萬, 1688~1749), 지우(知友) 밀암 이재를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이재가 지은 행장에 보면 “공의 저술로 시문(詩文)·잡저(雜著) 두루마리 수십 개와 <퇴도선생언행통록>, <계문제자록> 등이 집안에 갈무리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재, 권모, 권만 등이 공의 문집을 교감(校勘)하고 산절(刪節)하는 일을 논의하기 위해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밀암집>과 <강좌집>에 실려 있다.

이 편지들을 통해 공이 생전에 시고(詩稿)만은 손수 정리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728년경에 본집의 정리가 완료된 것 같으나 언제 간행했는지는 기록이 없다. 이재(李裁)가 1728년에 지은 서문(1728)에도 공의 유문을 고정(考訂)하였다는 등의 문집 편찬에 관한 기록만 있을 뿐 발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한편 정재(定齋) 류치명(柳致明)의 <연보(年譜)>에 보면 “1832년에 류치명이 봉화 유곡(西谷) 석천정사(石泉精舍)에 머물면서 공의 문집을 교정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또 <창설재집> 본집의 부록 끝부분에 1860년에 류치명이 지은 <백록리사봉안문(柏麓里社奉安文)>과 <상향축문(常享祝文)>이 있다. 이 <봉안문>은 뒤에 추가한 것으로 본집과 목판 상태가 비슷하여 본집이 간행되고 뒤이어 추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창설재집>은 류치명이 문집을 교정했던 1832년에서부터 백록리사에 위패가 봉안된 1860년까지의 사이에 목판이 완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집 18권 9책의 권1~7은 시(詩), 권8~16은 문

(文), 권17~18은 부록(附錄)으로 되어 있다. 권두에 1728년에 이재(李裁)가 쓴 <서문>이 있다.

권1~7은 시(詩)로서 제목만 모두 645개로, 문집 목판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한다. 권7의 끝에 있는 <유곡잡영사십오수(酉谷雜詠四十五首)>는 하나의 제목에 시가 45수이다. 이 시는 1725년 공이 작고하던 해에 지은 것으로 공의 고향 유곡[타실]의 자연경관 등 45가지를 읊은 것이다.

공은 장주문(章奏文) 작성에 뛰어났으나 아쉽게도 본집에는 상소문이 한 편도 실려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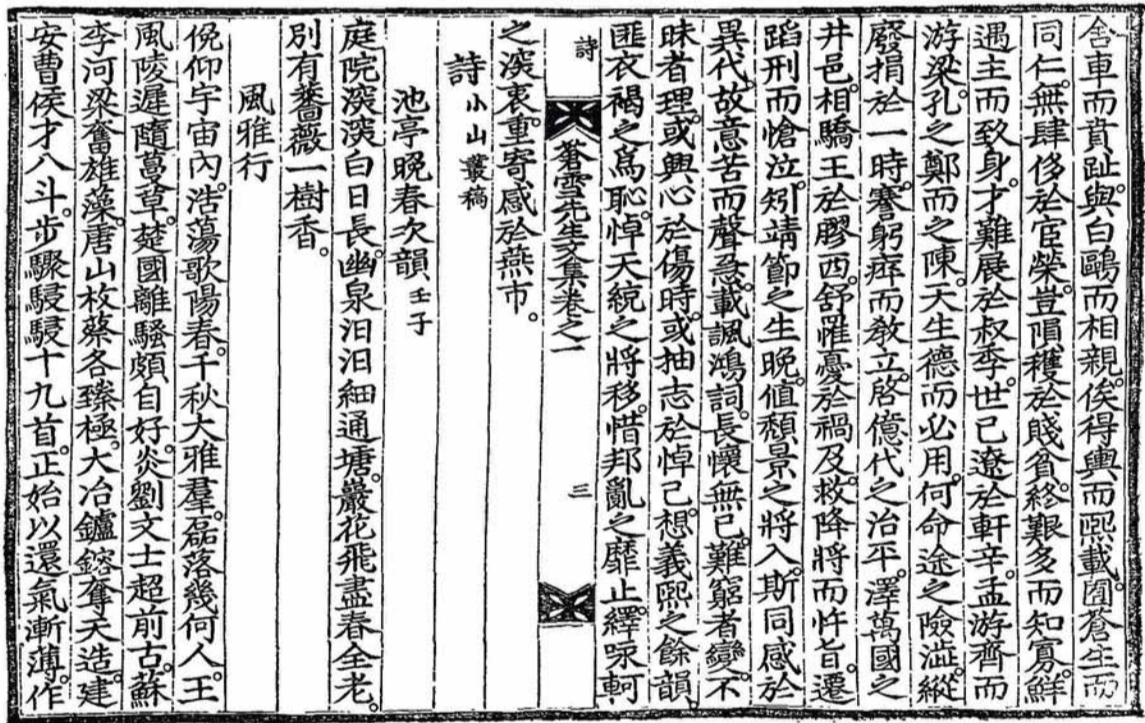
<창설재집>은 아직 한글로 번역되지 않았다. 원문 이미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에는 구두점인 찍힌 원문 이미지와 컴퓨터 입력문이 실려 있다.

다음은 공이 19세 때인 1672년에 지은 <지정만춘차운(池亭晚春次韻: 못가 정자에서 늦봄에 차운하다)>라는 시이다. 여기서 못가 정자는 공의 5대조 종재(沖齋) 권벌(權撥, 1478~1548) 공의 종택 서쪽 끝에 있는 청암정(靑巖亭)을 가리킨다.

庭院深深白日長(정원심심백일장)
幽泉汨汨細通塘(유천골골세통당)
巖花飛盡春全老(암화비진춘전로)
別有薔薇一樹香(별유蔷薇一樹香)

하루해 긴긴 봉날 집안 뜰 고요하고요한데
깊숙한 샘물이 가늘게 졸졸 못으로 흘러드네
봉이 무르익어 바위 위에 핀 꽃 지고 없는데
정미 한 그루만 유별나게 향기롭게 꽃피었네

마지막 구에서 <논어>의 “해가 저물어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는 말이 연상된다. 공도 일찍부터 이러한 뜻을 품었음을 엿볼 수 있겠다.



수타사



권혁진 박사
추일공파, 36세, 강원원문연구소

수타사탐방안내소를 지나자 갑자기 깊은 숲속이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사찰의 역사를 말해준다. 노송보다 더 오래된 부도가 숲속 깊은 곳에 자연스럽다. 흥우당 스님의 부도는 조선시대 전형적인 부도탑 형태다. 숲을 지나자 느닷없이 ‘조담(槽潭)’이 눈에 들어온다. ‘조(槽)’는 ‘구유’를 뜻하는 한자다. 가족의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을 ‘구유’라고 하며, ‘구유통’이라고도 한다. 절벽 밑으로 물이 길게 고인 모양이 구유통 같다. 선인들은 그 모양을 보고 ‘조담’이라 불렀다.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은 1727년에 「봄에 수타사에 유람 갔다가 조담과 용연을 보다」 란 시를 짓는다.

수타사가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용연(龍淵) 때문이다. 너럭바위 가운데를 뚫고 물이 세차게 떨어지며

깊은 못, 용연을 만들었다. 물이 떨어지는[水墮] 곳에 절이 들어서서 수타사다. 용은 비구름을 관장하는 동물이다. 가뭄이 들면 용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다. 용연은 용추(龍湫)라고도 했다. 흥천 현감이었던 안중관(安重觀)은 「수타사 용추에서 비 내리기를 바라는 제문」을 지어서 기우제를 지냈다. 기우제를 지낼 정도로 수타사 용추는 영험한 곳이었다. 이항로(李恒老, 1792~1868)는 용담(龍潭)이라고 하였다.

수타사 산소길은 수타사 인근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던 길이었다. 수타사 인근 신봉마을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 흥천 읍내까지 왕래하고 했다. 잠시 걷다 보면 절경인 ‘평소’에 닿는다. 평소는 여름 통을 일컫는 강원도 사투리로, 통나무를 파서 만든 여름통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김상정(金相定, 1722~1788)은 한여름에 흥천에 왔다가 삼담오탕(三潭五湯)을 구경하고 ‘다섯 개의 물 웅덩이[五湯]’를 시로 읊었다.

수타사는 신라 성덕왕 7년(708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건 당시는 일월사(日月寺)라고 했다. 선조 2년(1569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기며 수타사(水墮寺)로 이름을 바꿨다. 순조 11년인 1811년엔 수타사(壽陀寺)로 바꾼다. 그럴듯한 전설이 전해진다. 용연에서 매년 슬러가 빠져 죽는 사고가 발생하자, 발음은 같으면서 뜻은 목숨을 뜻하는 ‘수(壽)’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마타불의 무량한 수명을 상징한다는 설명도 전해진다. 박운

목(朴允默, 1771~1849)은 개명한 이후에 편액을 썼다. 졸렬한 글씨로 절을 더럽혔다고 겸손하게 표현했으나, 졸렬하고 보단 소박(素樸)하고 고졸(古拙)하다. 소박이란 원래 가공되지 않은 사물의 원형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교가 가미되지 아니한 자연스러움을 뜻한다. 도덕경의 대교약졸(大巧若拙)이 떠오른다. 대교약졸은 인위적 기교가 아닌 자연을 본받아 이루어지는 최고의 단계다. 수타사 경내가 모두 ‘대교약졸’이다. 지나치게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다. 흥회루는 몇 번의 중수 과정을 거쳤지만, 옛 모습을 여전히 품고 있다. 옷을 껴맨 것 같지만 결코 누추하게 보이지 않는다. 편액에서 볼 수 있는 고졸의미를 심우산방과 좌측의 요사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대적광전은 크지 않지만 정연한 짜임새와 높은 완성도로 조화와 절제된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단아한 모습이다. 지나치게 꾸미지 않아서 위엄감을 주지 않지만, 위엄을 느낄 수 있다. 이천보(李天輔, 1698~1761)는 “덤굴 뚫고 십리 말 달려, 한밤 책상에서 계승을 듣는데, 오래된 벽은 뚫어져 달을 머금고, 차가운 종소리 멀리 서리를 맞네”라고 노래했다. 수타사를 노래한 한시는 사찰을 노래한 것도 있지만 수타사 주변의 승경을 읊은 것도 있다. 조담, 용연, 삼담오탕 등이 대표적이다. 주변의 풍광을 노래한 한시를 통해 수타사는 문화적인 요소와 경관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룬 공간임을 알려준다.

건너편에 있는 삼층석탑은 못 보고 지나치기 일쑤다. 삼층석탑 일대가 수타사의 전신인 일월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의 수타사에 앞서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시대에 운영된 사찰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타사



용연